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은 꿈(Vision)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꿈은 우리(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좌절이나 실패에 직면하여 피하지 않고 언제나 뛰어 넘어설 수 있는 것은[유월(踰越)] 모두가 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은 ‘볼 수 있는 것’(Visible)이고 ‘만질 수 있는 것’(Tangible)이어야 합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것’(in-Visible, in-Tangible)은 꿈이 아니고 허상(虛像)입니다.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개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는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The Sickness Unto Death, *Sygdommen til Døden*)이라는 책에서 꿈(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함축된 의미를 우리 크리스천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하지만, 사람은 본래 절망이 반복되면 매사에 소심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정체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꿈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한 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꿈을 다 이루었다면 남은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같은 질문에 스스로없이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꿈의 시제(Tense)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죽지 않고 살기위한 방편에서 꿈(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꿈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고 또한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꿈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정녕 꿈이 되기 위해서는 꿈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꿈은 결코 과거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죽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꿈의

시체가 현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제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꿈의 형태와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위에서 재물, 건강, 명예와 지위, 우리 후사(後嗣)들의 안녕과 출세, 견고한 신앙, 행복한 삶, 뭐 이런 것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들 말고는 꿈의 또 다른 형태와 종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꿈을 위해 살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사람이 꿈을 재물, 건강, 신앙, 명예, 지위 등에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앞선 화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하기에 그렇다면 이 같은 꿈의 시체는 현재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우문(愚問)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꿈만 간직하고 있지 꿈을 이룬 것은 아닌데, 어떻게 현재에 꿈이 있겠느냐는 당연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자는 꿈의 자리(시체)가 마땅히 '현재'에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꿈의 자리는 반드시 현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고요? 이하 찬찬히 따져가며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01:01)

무릇 생명이 있거나 운동력이 있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은 그들 존재의 근원(根源)으로서(곧 그들 존재가 시작된 처음으로서), 예외 없이 그 어느 때의 과거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 처음부터 존재의 소멸(消滅)을 의미하는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더한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명제를 뒤집기 위해서는 과거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길 수 있으나, 그렇지만 천지만물에 현재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찰나(刹那, Moment)라든지, 순간(瞬間, Instant)이라든지, 지금(只今, Now)이라는 단어들을 현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는 우리 지각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관념(觀念, Idea)으로서 허상(虛像)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기에, ‘현재에 흐르는 시간’을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처음까지’를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통하여 바로 새겨둘 수가 있을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소위 찰나, 순간, 지금도 모두 과거로 지나가 버렸는데 말입니다.

다른 해석과 반론이 없다면, 이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무’(無, Nothing)로서 치환(置換)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는 현재와 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였거나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유’(有, Something)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천지만물을 유라 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유는 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것들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는 보다 정확히는 살아 운동력이 있는 천지만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선뜻 대답하기 곤란할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 같은 원초적인 명제에 의지해 보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곧 무로부터, 이를테면 현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외의 다른 근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말입니다.

이 경우 무에는 과거와 미래와 같이 시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시제)은 오로지 과거와 미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흐르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현재는 과거 이전에 또는 미래 이후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의 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 속에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한 중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흐르는 시간이 머무는 공간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천지만물 모든 것과 함께 과거와 미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 운동력이 있는 삼라만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여기서부터(과거) 저기까지(미래)', 곧 흐르는 시간의 미분(微分)된 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무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일견기에 현재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별천지의 때이자 장소로서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창조(Creation)의 객체로서 천지만물은 예외 없이 모두가 유에 속한 것들입니다. 곧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흐르는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보다 정확히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서 이야기 하고 있는 천지만물은 어느 것도 이전부터, 곧 과거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것에서부터 재차 탄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근원은 유가 아닌 무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것이 탄생된 배경으로서 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비추어, 창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창조된(created) 천지만물 모든 것의 내력은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said)으로부터 존재하게(was) 되고, 생성되어(made), 불리면서(called), 축복된(blessed) 가운데 탄생하게 됩니다. 곧 천지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의지대로 창조되어(created) 결국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로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창 01:03-04)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So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 under the expanse from the water above it. And it was so. 창 01:07)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 01:1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창 01:22)

모두가 ‘과거에서 시작되어, 미래를 예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 과정에서,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과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었고, 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성업(聖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01:0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03)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제(Tense)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창조의 기록에는 유에 속한 천지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질 등을 다루고 있는 사색이나 논의 또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현재 또는 무에 대한 존재나 실체 등은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 중에 히브리어 동사로서 ‘창조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바라’(Bara, בָּרָא)라는 단어를 통해 그 실체를 우회적으로 함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Bara)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어로 하지 않고, 소재(시제) 또한 쓰고 있지 않는 특질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적에 의한 ‘무에서의 창조’에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쓰임새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화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천지만물에는 제각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름들은 그들 존재 이전의 과거에 존재하였던 또는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붙인 것입니다. 미래 또한 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현재의 이름과 존재는 누가 붙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무의 주체로서 현재(Am)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붙이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출 03:14)

그렇다면 현재의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와 미래 속에 모든 천지만물을 가두어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천지만물에게 현재(Am),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모두가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를 발견하고, 또한 찾게 하심에 있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하느니라”(행 17:24-28)

모든 천지만물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창조되어진 까닭에, 과거와 미래는 모두 유한(limited)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 존재의 처음(과거)과 마지막(미래)을 예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현재는 무한(Infinite)하며, 실체는 다름 아닌 사랑(Love)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 사랑’으로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라”(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요일 04:08)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him. 요일 04:16)

그렇다면 현재는 어김없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시간이 아닌 ‘무한한 사랑’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영원히 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금 되짚어 두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I AM WHO I AM'이라고 칭하셨고, 본성을 'God is Love'라고 특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바라(*Bara*)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지난 이후의 시제로서 우리에게 현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현재는 과거 이전(以前, Before) 그리고 미래 이후(以後, After)의 시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 비로소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흡수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저 영원한 '천국'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꿈의 소재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꿈의 본질과 정체가 머물고 또한 머물러야 하는 시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꿈의 형태와 종류 모든 것의 소재지는 현재가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되짚을 수 있는 것은 '꿈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두고 계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은 모두가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은 모두가 하나님(현재)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AM)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위에서 재물, 건강, 명예와 지위, 우리 후사(後嗣)들의 안녕과

출세, 견고한 신앙, 행복한 삶 그 모든 것들이 정녕 꿈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현재에 시제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이러한 ‘재물, 건강, 명예, 지위 등의 꿈을 현재, 곧 하나님 사랑의 실현(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의 사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꿈의 정제, 보다 정확히는 꿈(축복)의 소재지는 모두가 왜곡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꿈의 소재지를 미래에 두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 모두는 한결같이 미래에 시제(소재지)를 두고 있었다고 보아, 모두가 기복(祈福, 개꿈)이었고 거짓(허상)된 것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으나 줄곧 죽어있었던 것이나 진배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필자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꿈을 간직하고 있는냐고 물었던 이유는, 우리는 모두 살아있으나 죽어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내심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목회자들은 우리를 철저히 기망(欺罔)하고 있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우리를 착오(錯誤)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꿈의 소재지를 미래에 두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의 그릇된 언행과 심사는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땅위에서 미래의 꿈[복(福)]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꿈도 축복도 아닌 그저 개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만약 재물, 건강, 명예와 지위, 우리 후사(後嗣)들의 안녕과 출세, 견고한

신앙, 행복한 삶 등이 꿈(축복)일 수 있다면, 마땅히 고난도 꿈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꿈일 수 있습니다. 가난함도 슬픔도 좌절도 이로 인한 그 밖의 모든 고통도 꿈일 수 있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 또한 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현재(I AM WHO I AM)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08)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꿈의 사람을 지칭하기에 주저 없이 요셉(Joseph)을 이야기 합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총리대신에 두고 있었을까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셉이 언감생심 미래에 총리대신을 꿈꾸고 있었다면 필자생각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궁 옥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꿈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대신이 된 것은 꿈의 성취가 아니라 현재의 꿈(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간직한 대가로 자신에게 허락된 말 그대로 인생(꿈을 이루기 위해 지쳐가는) 자체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총리대신이 꿈의 성취라면 왕은 이보다 더한 꿈의 성취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총리대신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비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왕의 일대기를 돌이켜 볼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꿈이었고 꿈의 성취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이 소원하였던 꿈이었을까요? 만약 이러한 꿈이 진정 꿈이 되기에 마땅한 것들이라면, 이 땅위에 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유대왕 하나쯤은 수중(手中)에 지니고 오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五餅二魚)로는 부족하고 산해진미(山海珍味)의 또 다른 오병이어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셨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였고 예수님 또한 처지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꿈을 현재(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성취)에 두고 있었고 또한 두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결단코 미래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꿈을 미래에 두고 호도(糊塗)하거나 왜곡(歪曲)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사랑과 기쁨의 성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위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닐진대 축복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고난도 꿈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넘어짐도 꿈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도 슬픔도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꿈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되신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01:20-21)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으며,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붙여져 있다면, 우리는 오로지 현재에 두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통로를 미래에 걸쳐두고 앞세워서는 곤란합니다. 회개와 참회가 곧 현재를 향한 축복의 통로이자 꿈의 성취를 위한 통로임을 다시금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다시금 옅게 깨달아 우리 꿈의 성취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이후로부터 자랑스럽게 재차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